2017
vol.199 | 2 February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명절 열차승차권 예매사이트,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하라!

테마기획
국민생활체육 볼링,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칠까요?

인 터 뷰
국토지리정보원의 점자지도,
어떻게 제작될까요?

포 커 스
촉각과 청각으로 공감하는 미술,
'활짝 열린 방'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contents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봄나물

04 | 시선집중 – [성명서]명절 열차승차권 예매사이트,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하라!

06 | 테마기획 – 국민생활체육 볼링,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칠까요?

08 | 인터뷰 – 국토지리정보원의 점자지도, 어떻게 제작될까요?

10 | 포커스 – 촉각과 청각으로 공감하는 미술, '활짝 열린 방'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길을 거닐며 / 하승희(대구광역시 중구)

13 | 월드 리포트 –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미니레이더 기술 개발 성공
– 시각장애인 차별과 폭력, 안내견이 촬영해

14 | 뉴스앨범 –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사랑의 후원금 전달
–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 선정
– 아식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다운점퍼, 가방 전달식
– 현대홈쇼핑, 시각장애인식교육 진행

16 | 2016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정산

voiceye.com VOICEYE

2017년 2월 4일은 24절기 중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춘인데요.
입춘에는 땅의 기운과 영양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봄나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나물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 ⠊⠊ ⠊⠉ ⠊⠊
⠘⠊ ⠉⠉ ⠊⠉ ⠉⠉ ⠉⠊ ⠊⠉
⠉⠉ ⠊⠊ ⠉⠊ ⠉⠉ ⠉⠉ ⠊⠊

봄 나 물

일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된소리 ⠉⠉
받침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모음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ㅐ ⠁⠊	ㅒ ⠘⠊⠊	ㅔ ⠁⠁	ㅖ ⠉⠊	ㅘ ⠁⠊	ㅙ ⠊⠊⠊	ㅚ ⠘⠁	ㅟ ⠊⠊	ㅢ ⠊⠊	ㅞ ⠊⠊⠊	ㅝ ⠁⠊	ㅟ ⠊⠊⠊	ㅢ ⠊⠊		
약자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자 ⠘⠊	카 ⠁⠁	타 ⠁⠊	파 ⠁⠊	하 ⠉⠊	억 ⠁⠁	언 ⠉⠊	얼 ⠉⠊	연 ⠁⠉
	열 ⠁⠉	영 ⠁⠁	옥 ⠁⠉	온 ⠁⠉	옹 ⠁⠁	운 ⠁⠁	울 ⠁⠁	은 ⠁⠉	을 ⠉⠉	인 ⠁⠊	것 ⠉⠊ ⠉⠊		쌍받침 ⠉⠊		
약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숫자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 ⠉⠉ ⠉⠉ ⠉⠉										
영어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ㅣ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성 명 서]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사이트,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하라!!

시각장애인도 철도를 이용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예매를 즉각 개선하라!

'대국민 수강신청'이라 불리는 설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가 1월 10일부터 코레일·SR 예매사이트와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 등에서 실시됐다. 전체 승차권 중 70%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머지 30%는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판매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승차권의 온라인 예매를 돕기 위해 별도의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지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코레일·SR 사이트가 설 명절예매와 관련해서는 웹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열차표 예매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설 명절 예매 사이트는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예매 사이트의 내용 또한 제대로 파악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접속 횟수도 6회로 제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예매 기간에는 전용 웹 사이트와 현장 예매 이외에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 고객센터 전화(1544-7788, 1588-7788)에서는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사이트로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이며, 웹 접근성의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25만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 불편 없이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현행 예매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명절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시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코레일과 SR은 시각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컴퓨터 화면읽기 프로그램과 키보드만으로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반응시간에 제한 없이 홈페이지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코레일과 SR은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접근성 취약계층에게 승차권의 일부를 할당하여 전화로 예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코레일과 SR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으로 차별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생활체육 볼링,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칠까요?

일정한 무게의 공을 굴려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 볼링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볼링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볼링은 진자운동의 원리를 응용하여 볼을 굴림으로써 목표지점에 놓여있는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로, 무거운 공의 스핀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과 목표물에 정확히 공을 굴려 넣을 수 있는 동작과 스피드가 복합된 경기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볼링 경기를 방영하면서 국민들의 볼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볼링은 레인의 앞 쪽에 놓여있는 볼링핀을 보고 볼링공이 가운데를 향하게 굴려야하기 때문에 흔히들 시각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도 볼링 클럽, 동호회, 국내 · 외 경기 등에 참여하며 볼링을 생활체육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볼링을 즐기고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의 볼링은 저시력부와 전맹부로 나뉩니다.

저시력부의 경기방식은 일반적인 볼링의 경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차이점으로는 볼링공을 한 번 굴린 후 두 번째에 처리해야 하는 스페어 볼링핀의 개수 및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경기보조인 각 선수별로 1명씩 함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맹부 역시 경기보조인을 선수별 1명씩 둘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이드레일'이라고 하는 바를 설치해, 한 쪽 팔을 '가이드레일'에 지탱해 볼링공을 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가이드레일'은 시각장애인이 볼링공을 가운데 방향으로 굴릴 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레일'은 가벼운 금속재질로 조립, 해체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 전맹부는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아이패치를 착용한 후 그 위에 안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시각장애인 볼링 경기로는 전국장애인체전의 볼링 경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2015년에 개최되었던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볼링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송파구에 위치한 한 볼링장에서 볼링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볼링을 즐길 수 있음을 재차 설명했지만 당시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은 결국 볼링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볼링 클럽의 회원이거나 볼링 선수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볼링장에 가이드레일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작하여 가지고 볼링장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볼링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점자지도, 어떻게 제작될까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나타내는 점자지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용관 사무관님을 만나 제작 과정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곳곳의 지도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간정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항공사진을 통해 국가의 지형적 변화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기본도를 만들어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도 저희 기관의 기본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음 점자지도 제작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점자지도를 만들게 된 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전에 저희 기관에 계시던 분의 조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분은 조카에게 지도를 알려주길 원하셨지만 시각장애인인 조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지리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배경이 되어 2014년부터 점자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자지도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지도를 제작하든지 가장 처음에는 기본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본도란 특정의 주제(토지 이용, 도로, 식물 생태 등)를 추가 또는 추가 인쇄 할 때의 기초가 되는 지형도를 의미하는데 이 기본도를 잘라 구간을 나누어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정보를 모두 표현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예측하여 추출하고, 해당되는 정보를 삽입하여 점자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2페이지가 반복되며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2016년에는 외곽, 지형, 산맥, 나라 등을 나타낸 교육용 세계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실제 점자지도 사용 후기는 어떻습니까?

점자지도는 제작과정에서부터 시각장애인 분들의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2014년에는 점자만으로 이루어진 지도를 제작했었습니다. 당시 점자지도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 분들 중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생소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의 틀을 마련했고,2015년 묵자와 점자가 혼용된 새로운 점자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의 점자지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는 2014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제작된 지역별 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가는 곳의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용 점자지도 활용법에 대해 맹학교 선생님, 점자교구 제작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였는데, 맹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지도를 볼 수 없어 몇 과목에 한정되었던 사회탐구 선택영역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겼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국토지리정보원의 점자지도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 따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없지만 기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가 최신 정보로 유지 · 보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반영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했고, 데이터를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유지 ·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가능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할 점자지도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본 점자지도 제작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위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 활용 목적에 맞는 점자지도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을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나타낸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고, 시각장애인들이 등산이나 여행을 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지도도 제작할 생각입니다. 또 향후 점자지도가 시각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목적에 맞춰 다양한 지도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촉각과 청각으로 공감하는 미술,

‘활짝 열린 방’

미술 작품을 손으로 만난다!

다가가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의 ‘활짝 열린 방’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다가가는 미술관’이라는 테마로 시각장애인도 촉각과 청각으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활짝 열린 방’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활짝 열린 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술 작품 감상의 틀에서 벗어나 촉각과 청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요. 부산시립미술관은 소장품 17점의 촉각도판과 점자 해설을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지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부산미술 1세대 작가인 김종식의 〈부산항 겨울〉을 비롯, 김환기, 박수근, 유영국 등 미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회화 작품에서부터 이이남, 정만영의 미디어 · 사운드 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환기 작품 〈십자구도〉의 경우 추상화면의 구도를 직접 만질 수 있게 하였고, 박수근 작품의 경우에는 특유의 거친 표면과 재료의 촉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활짝 열린 방'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개막되었는데요. 개막일에는 부산맹학교 전교생이 초대되어 전시 첫 관람객으로써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활짝 열린 방'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독립된 주체로서 장애의 벽을 넘어 새로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비장애인에게는 미술작품을 즐기는 시각적인 습관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감각을 활용한 체험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art.busan.g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artbusa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거닐며

하승희(대구광역시 중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과 1급의 시각장애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정안인 입니다. 평소에 시간 이 되면 저는 오빠와 함께 운동 삼아 길거리를 거닐기도 하고, 어딘가로 갈 때는 오빠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길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때 시각장애인인 오빠와 함께 어딘가로 가기위해 지나게 되는 '길'의 느낌과 저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평소 오빠와 함께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그냥 '바삐 움직이는 무리들과 차들이 지나다니는 길',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지나치는 공간', '공기가 차네', '날씨가 좋네', '사람이 많네', '사람이 적네'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사뭇 달랐습니다.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어 앞을 보지 않고 지나가며 어깨를 치는 사람, 길을 가다가 무심코 잊어버린 것을 찾으려 급 멈추었다가 한 바퀴 돌아 부딪힐 듯 마주하게 되는 사람, 터덜터덜 물건을 담고 지나가는 시장 리어카로 치고 가는 사람, 삐익 하고 굉음을 내며 쌩하고 지나가는 자전거,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느라 빠르게 커브를 돌아 들어오는 차, 곧게 뻗은 길 끝에 이질적으로 만들어진 사선의 신호등, 매 사거리 마다 달라지기도 하는 신호 순서, 미처 남은 한 개의 계단을 보지 못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울퉁불퉁한 길, 가려고 했던 길이 공사현장이 되어 돌아가야 하거나 도로로 지나가야 하는 등의 상황을 만났고, 그것은 저에게 순간순간의 긴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다양한 곳으로 다니지 않아도 보이는 사람들과 물건들과 지형들이 다 방해물이 되고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거닐던 때에 가장 긴장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저의 오빠일 것입니다.

직접 많은 경험들은 하지 않았지만 오빠가 떨어질까 봐 혹은 부딪힐까봐 걱정하고 긴장하는 순간에서 제가 없었을 때 길을 다녀야 하는 오빠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며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들이 가끔 느끼는 기분 상하는 경험들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너무 답답하면서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혼자 걸었던 그 길에서 만난 자기의 길을 바삐 지나치던 사람들은 오빠와 제가 함께 가던 길에서는 가끔은 부딪히는 사람이 되고, 가끔은 길을 막는 사람들이 되고, 가끔은 밀치는 사람이 되어서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던 자전거들과 차들은 갑자기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나타나 저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되어서 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얼 하나 흘낏 보고 지나쳤던 홍보를 위한 각종 간판과 패널들은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혼자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오빠와 함께 걸으면서 느꼈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두려운 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길을 오빠와 함께 다니고 듣고 생각하고 나니 제가 혼자 걸었을 때 재빨리 걸어 다니지 않았는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았던가? 하고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부딪히지 않게끔 먼저 비켜주며 걸어가는 습관도 들이고 오빠와 같은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꼭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조심히 발을 떼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천천히 그리고 배려하며 걷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미니레이더 기술 개발 성공

단거리 밀리미터파는 장애물 및 지형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 항공기나 자율주행차량 등에 활용되는 레이더의 축소형 버전인데요. 핀란드의 VTT(기술연구센터,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연구소에서 단거리 밀리미터파 센서를 목에 걸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발열과 전자파가 적고 배터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안개가 끼거나 눈, 비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25명의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23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8명이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주요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별과 폭력, **안내견이 촬영해**

영국 런던의 아미트 파텔(남, 37)씨는 5년 전 원추 각막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파텔 씨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키카'의 도움으로 외출을 하곤 하는데요.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파텔 씨는 '키카'가 학대 받은 흔적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일상적으로 처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키카'의 하네스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외출할 때마다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사람들이 보행을 하며 안내견이 방해가 될 때 가방, 우산 등으로 학대를 하거나 걷어차는 등의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파텔 씨는 촬영한 영상을 영국 일간지 메트로에 투고했고, 영국 언론들은 파텔 씨의 영상을 토대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 하네스 : 안내견의 몸에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도록 착용하는 벨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사랑의 후원금 전달

지난 1월 7일에는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는 국내 건설안전관리 관계자들 간의 상호교류 및 권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데요.

2017년을 맞이하여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며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 선정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시지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산시지회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확대, 인식개선사업 등에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지회 김영돈지회장은 “앞으로도 아산시지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식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다운점퍼, 가방 전달식

지난 1월 17일, 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노원지회에서 '따뜻한 겨울을 위한 다운점퍼, 가방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식회사 아식스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아식스코리아는 시각장애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총 76분께 기능성 다운점퍼와 기능성 가방을 각각 1개씩 전달하였습니다.

점퍼와 가방을 전달받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추운 겨울에도 점퍼와 가방 덕분에 따뜻하게 외출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홈쇼핑, 시각장애인식교육 진행

지난 12월과 1월, 현대홈쇼핑에서는 2차에 걸쳐 홈쇼핑 채널 화면해설 예외인정 조건준수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현대홈쇼핑 PD를 비롯하여 쇼호스트 등 관계자 4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교육을 통해 쇼호스트의 상품정보 전달 멘트가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화면 해설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 안내보행, 국내의 시각장애인 현황 및 홈쇼핑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홈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2016년도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금액
계			6,741,180	계		6,741,180
보조금	보조금		2,150,261	사무비		1,844,633
		보조금	2,150,261		인건비	1,678,352
후원금	후원금		27,340		업무추진비	3,701
		지정비지정후원금	27,304		운영비	162,580
				재산조성비		195,448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627,779		시설비	195,448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3,452,213	사업비	사업비	4,053,374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11,112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994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472,511	예비비	예비비	6,501
				이월금	이월금	640,230

| 201년도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입		세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108,846,498	계	108,846,498
지정후원금	3,900,000	CMS메카	396,000
비지정후원금	22,525,809	CMS사용료	396,000
잡수입	59,976	CMS이체수수료	878,680
CMS이체수수료수입	878,680	소식지 제작비	4,944,000
전년도 이월금	81,482,033	소식지 발송요금	915,570
		OB맥주후원 물품구입비(한빛맹학교전달)	1,000,000
		지정(결연)후원금 지급	1,000,000
		장학사업비	9,325,400
		자녀학습지원사업 학습교재구입비	1494,000
		오디오북제작사업 낭독활동비 상품권구입비	4,500,000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사업비	106,300
		시각장애인 신바람노래자랑	475,570
		시각장애인 레포츠 외갓집체험마을 사업비	1,316,600
		시각장애인 윷놀이대회	988,840
		시각장애인 가정문화체험사업비	7,667,520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	27,884,022
		시각장애인 여름가족캠프사업비	5,636,790
		따뜻한 한끼나눔사업비	262,000
		사랑의 김치나눔사업비	3,170,800
		밑바찬 지원사업비	75,000
		메트라이프 유소년 축구교실사업비	200,000
		복지관 물품구입비	118,800
		이월금	37,094,606

후 원 물 품

세 입		세 출
항목	후원물품내역	후원물품사용내역
이월 후원물품	LG유플러스 후원 070플레이어 330대	전국 시각장애인 통합대회 200대 전달
	SK네트웍스 후원 온누리상품권카드 44장	중증시각장애인 가정 5장 전달 시각장애인 윷놀이대회 상품권 1장 전달 시각장애인 윷놀이대회 상품구입 2장 시각장애인 노래자랑 시상품 6장 전달 시각장애인 윷놀이대회 시상용 1장 전달 직업재활 송년의 밤 상품 6장 전달
	아식스 점퍼 27벌	–
	국민은행 후원 쌀 10kg 32포대	저소득 시각장애인 32가정 전달
후원물품	영화식품 후원 옥수수 통조림 2,652캔	시각장애인 윷놀이대회 상품 100캔 전달 저소득 시각장애인 30가정 360캔 전달 한빛 맹아원 240캔 전달 교육생 및 주간보호이용자 936캔 전달 한빛 맹아원 및 밑반찬지원 대상자 480캔 전달 복지관 이용자, 주간보호센터 536캔 전달
	SK네트웍스 후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건 1000장	시각장애인 가족캠프참가자 3가정 10장 전달 행복을들려주는도서관 독서퀴즈선정자 2명 10장 전달 중증, 저소득, 독거 시각장애인 316명 980장
	탐앤탐스 후원 토마토주스 103박스	복지관 이용자, 교육생 103박스 전달
	서울메트로 후원 쌀 10kg 17포대	시각장애인 17가정 17포대 전달
	파리크라상 빵 및 케이크 24,484개	복지관 교육생 및 이용자, 대린원, 성모자애드림힐, 한빛맹아원, 주간보호센터 전달
	서울메트로 후원 라면 40개입 39박스	주간보호센터 5박스 전달
	한국오츠카제약 후원 로션세트 10박스	직업재활 송년의 밤 상품 10박스 전달
	오민환 후원 프린터 2대	복지관 내 2대 설치